

2019년 6월 2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무역협상을 기다리며 혼조 마감 반도체, 금융, 물류 상승 Vs. 에너지, 인텔, 보잉 하락

단기적인 대응에 치중하는 시장 참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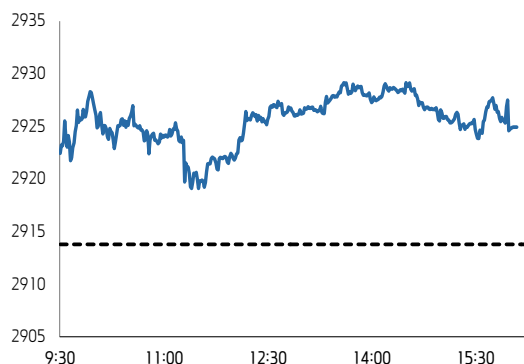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속에 상승 출발 했으나 기업별 이슈에 따라 변화를 보이며 혼조 마감. 한편,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무역협상 잠정합의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합의 기대가 유입되며 반도체, 금융업종 위주로 상승(다우 -0.04%, 나스닥 +0.73%, S&P500 +0.38%, 러셀 2000 +1.90%)

미 증시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이어진 가운데 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 변화. 특히 중국과 미국 일부 언론들은 무역협상에 대해 휴전에 합의되었다고 보도 했으나,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폭. 그러자 시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기다리며 선부른 전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개별 기업 이슈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임.

오늘 미 증시에서는 반도체, 금융주, 물류, 의약품 체인점,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 유틸리티 일부, 인텔 등 일부 종목은 부진. 반도체는 무역협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화웨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종목들의 상승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7% 상승. 다만 인텔(-1.51%)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며 실적 부진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하는 등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를 보임

한편, 미국 애완동물 제품협회가 올해 관련 산업이 3.9%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반려동물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약회사 머크(+0.35%), 동물 식품, 장난감 등을 판매도 하는 헬스케어 업종인 CVS 헬스(+1.94%), 동물 건강 진단 회사인 IDEXX(+0.80%) 등이 상승. 또한 월그린부츠(+4.09%)가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자 약국체인점도 동반 상승. 이렇듯 실적 개선 기대를 높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음.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이슈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에 주목하며 단기적인 대응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34.32	+0.59	홍콩恒生	28,621.42	+1.42
KOSDAQ	698.21	-1.57	영국	7,402.33	-0.19
DOW	26,526.58	-0.04	독일	12,271.03	+0.21
NASDAQ	7,967.76	+0.73	프랑스	5,493.61	-0.13
S&P 500	2,924.92	+0.38	스페인	9,147.80	-0.10
상하이종합	2,996.79	+0.69	그리스	859.12	+0.80
일본	21,338.17	+1.19	이탈리아	21,110.87	+0.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업종 강세 지속

보잉(-2.91%)은 미 항공국이 737맥스와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인텔(-1.51%)은 화웨이 이슈를 비롯해 PC교체주기 끝나고, 서버 판매량이 감소해 실적 부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반면, 마이크론(+2.78%), 자일링스(+3.46%), 쿼보(+2.16%), 쉘컴(+0.64%), NVIDIA(+2.49%) 등은 중국이 화웨이 문제를 무역협상 논의안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7% 상승세를 이어갔다.

월그린부츠(+4.09%)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카디날헬스(+2.15%), MRK(+2.87%) 등과 함께 상승했다. KB홈(+7.90%)도 매출 및 이익 전망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 이후 상승했으나, 코나그라 브랜드(-12.10%)는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했다. CVS헬스(+1.94%)는 주요 매출 부문 중 반려동물 관련 매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했다. 유나이티드헬스(+1.18%) 등 여타 헬스케어 업종도 실적 기대가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26%	대형 가치주 ETF(IVE)	+0.49%
에너지섹터 ETF(OIH)	-0.48%	중형 가치주 ETF(IWS)	+0.73%
소매업체 ETF(XRT)	+1.18%	소형 가치주 ETF(IWN)	+1.60%
금융섹터 ETF(XLF)	+0.89%	대형 성장주 ETF(VUG)	+0.48%
기술섹터 ETF(XLK)	+0.26%	중형 성장주 ETF(IWP)	+1.0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5%	소형 성장주 ETF(IWO)	+2.19%
인터넷업체 ETF(FDN)	+0.92%	배당주 ETF(DVY)	+0.58%
리츠업체 ETF(XLRE)	+0.8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5%
주택건설업체 ETF(XHB)	+1.5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9%
바이오섹터 ETF(IBB)	+1.38%	미국 국채 ETF(IEF)	+0.30%
헬스케어 ETF(XLV)	+0.70%	하이일드 ETF(JNK)	+0.25%
곡물 ETF(DBA)	+0.36%	물가연동채 ETF(TIP)	+0.19%
반도체 ETF(SMH)	+1.34%	Long/short ETF(BTAL)	-0.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5.73	-0.79%	-0.22%	+6.04%
소재	364.02	+0.35%	+0.29%	+9.17%
산업재	645.41	+0.09%	-1.17%	+5.15%
경기소비재	943.24	+0.59%	-0.95%	+5.82%
필수소비재	596.93	+0.09%	-1.41%	+3.26%
헬스케어	1,068.53	+0.62%	-1.10%	+5.28%
금융	452.57	+0.92%	-0.21%	+3.54%
IT	1,370.60	+0.28%	-0.80%	+7.15%
커뮤니케이션	162.96	+0.43%	-1.18%	+1.34%
유틸리티	301.47	+0.13%	-2.17%	+3.01%
부동산	227.23	+0.73%	-4.09%	+1.7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관망속에 종목 장세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9%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0%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92 계약)를 보였으나 0.10pt 하락한 279.1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6.3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무역협상을 기다리며 혼조 마감 했다. 뚜렷한 변화 요인보다는 실적 개선 종목들을 비롯해 일부 양호한 이슈가 부각된 반도체와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중소형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1.90% 급등하는 등 종목 장세가 특징이었다. 이러한 미 증시 특징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한국시각 29 일 오전 11 시 30 분)을 앞두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보다는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전일 KOSDAQ 이 바이오 업종 부진으로 급락 했으나, 이를 제외한 여타 종목의 경우는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감산합의 기간 연장을 시사하는 등 원유시장에 긍정적인 언급을 한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반면, 인텔(-1.51%)이 화웨이 및 PC 교체시기 마감, 서버 판매량 감소 전망속에 부정적인 실적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한 점은 부담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마이크론(+2.78%) 등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이 낙관적인 무역협상 기대로 강세(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7%)를 보여 영향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1 분기 GDP 성장률 3.1% 확정

미국 1 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예상에 부합된 전분기 대비 3.1% 성장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소비지출이 0.9% 증가로 수정치(1.3%) 보다 하향 조정 되었으며, 물가지수는 0.9%로 수정치(0.8%) 보다 상향 조정 되었다.

5 월 미국 잠정주택매매는 전월 대비 1.1% 증가로 발표되며 지난달 발표치(mom -1.5%)나 예상치(mom +0.6%)를 상회했다.

6 월 캔자스시티 연은 지수는 전월(4) 보다 둔화된 0 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대부분의 지역연은 지수가 부정적인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관망세 짙은 시장

국제유가는 무역협상을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이며 소폭 상승 마감 했다.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편, OPEC 정례회담을 앞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감산 합의는 국제유가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해 감산 합의기간 연장을 시사한 점은 상승 요인 중 하나 였 다.

달러화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타 환율에 대해 소폭 강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모습이다. 한편 엔화는 이란과의 마찰이 이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

국채금리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장중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협상 합의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언급하자 하락 했다. 한편, 비둘기파 성향의 메리 데일리 센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금리를 인하할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주장 했으나 영향은 크지 않았다.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50 배)를 하회한 2.44 배, 간접입찰이 12 개월 평균(61.0%)에 미치지 못한 58.2%를 기록했으나 이 또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금은 무역협상을 기다리며 소폭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6% 상승했으나, 철근은 0.12%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9.43	+0.08	+4.14	Dollar Index	96.209	-0.01	-0.43
브렌트유	66.55	+0.09	+3.26	EUR/USD	1.1369	0.00	+0.67
금	1,412.00	-0.24	+1.08	USD/JPY	107.78	-0.01	+0.45
은	15.294	-0.53	-1.76	GBP/USD	1.2670	-0.16	-0.25
알루미늄	1,790.00	-1.65	+0.51	USD/CHF	0.9765	-0.15	-0.54
전기동	5,989.00	+0.02	+0.27	AUD/USD	0.7008	+0.33	+1.23
아연	2,475.00	-1.24	+0.28	USD/CAD	1.3100	-0.21	-0.70
옥수수	451.00	-0.77	-2.17	USD/BRL	3.8292	-0.42	-0.28
밀	546.75	+0.05	+2.82	USD/CNH	6.8726	-0.22	+0.17
대두	912.25	-0.65	-3.06	USD/KRW	1158.10	+0.13	-0.34
커피	106.70	+0.61	+4.81	USD/KRW NDF1M	1156.30	+0.25	-0.16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012	-3.45	-1.61	스페인	0.392	+0.20	+0.30
한국	1.622	+2.00	+7.20	포르투갈	0.478	+0.50	-5.50
일본	-0.141	-0.50	+2.40	그리스	2.449	+1.30	-10.00
독일	-0.320	-1.70	-0.20	이탈리아	2.132	-0.80	-1.00